

# 탈-중심성을 구성하다

[脫-中心性]



존재로서의 모순과 한계를 넘어서는 층위를 지니며  
존재성에 따른 매개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성질

composition  
of de-centrality

홍산, 찍고 그리고 쓰다

**the term de-centrality  
does not exist**

**see? décentration.**

# 의미의 물리과 물학의 재정의 여성주의와 탈남성주의 시선의 언어와 시선-단하기



## 臉-中心性

[탈-중심성]

n.

존재로서의 모순과 한계를 넘어서는  
층위를 지니며 존재성에 따른 매개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성질

# 의미의 몰락과 몰락의 재정의

참고문헌 |

심은섭 (2010). 노마드적 사유와 脫중심의 비대칭 詩. 시와세계, (31), 260- 275.  
신승환 (2009). 탈중심성 논의의 철학적 지평. 로컬리티 인문학, (1), 147- 180.

뒤샹, 앤디 워홀, 마그리트.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을 설명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떠 올리는 이름들이다. 도대체 포스트모더니즘 노래를 불러대는 오늘을 살아가며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포스트모더니즘? 그거 막 마그리트 같은 거. 앤디워홀이 하는 팝아트. 이런거 다 포스트모더니즘이야.”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의미’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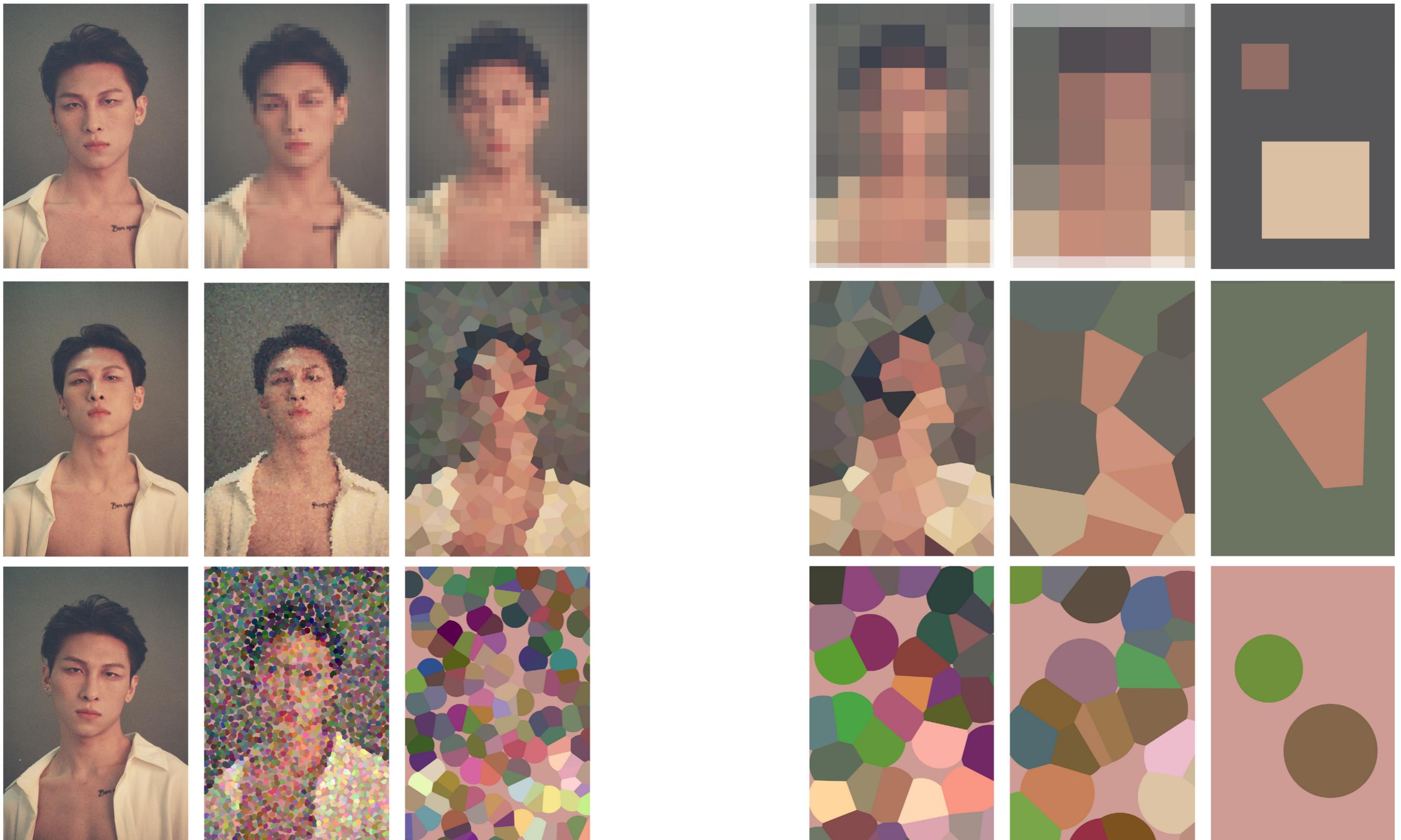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 의미가 가진 중심성의 해체에 의의를 둔다.** 다시 말해 어떤 의미와 개념에 대해 특정 시선으로 정의해나가는 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시선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이를 해체해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C'est ci ne pas une pipe.*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 도래하기 이전까지 파이프라 불리는 형태를 가진 물건에 대해 파이프라는 이름을 붙이는 일련의 과정에 의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파이프는 정말 파이프일까? 파이프에 사과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 물건은 더 이상 파이프로서의 존재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릴적 뒤샹의 <샘>을 보고 누구든 한 번쯤은 “우리 학교 화장실 변기를 떼어다가 내 이름만 적으면 나도 세기의 예술가 하겠네”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미술 같지 않은 미술. 예술 같지 않은 예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실재의 재현이 촉망받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사진기술의 등장과 함께 ‘실제 인물과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은 사진의 위상에 다가갈 수 조차 없었다. 의미와 정의의 과도기에서 뒤샹의 <샘>이 태어났다. 작품의 규모와 수려한 테크닉이 아닌 발상의 전환과 시선의 반전이 촉망받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사진기술이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하며 실재의 사실적인 재현은 더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셀 수 없는 현실의 복제 파도 속 휩쓸려온 사람들은 가시적인 존재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더이상 사람들은 현실의 재현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실재’는 몰락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정의(definition)는 해체되기 시작했다. **앤디워홀은 무 의미한 복제의 파도 속 ‘복제’라는 무의미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게 하나의 도안을 무한번 복제할 수 있는 실크프린팅 기술이 등장했으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복제’하는 것이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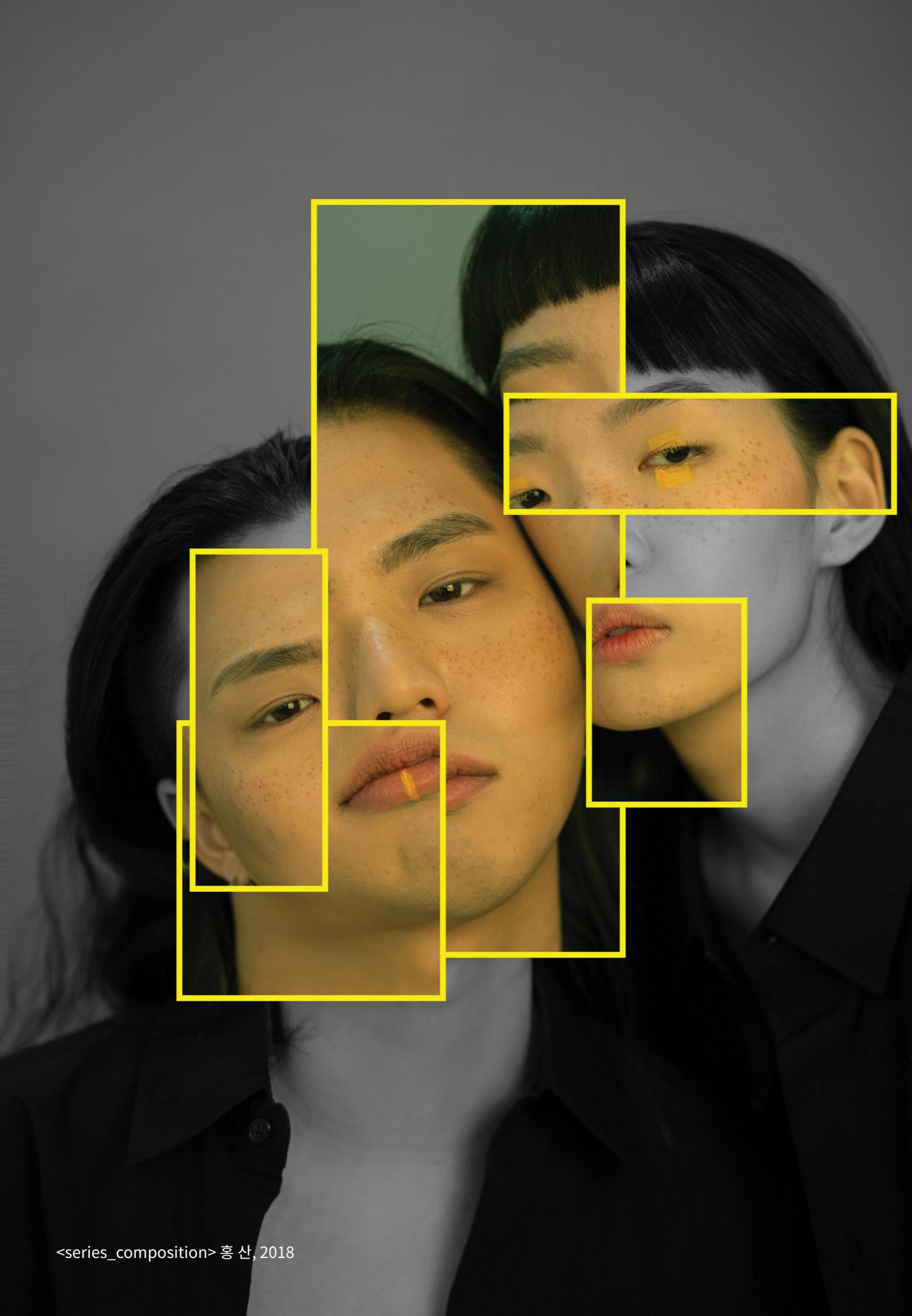


**중심성(Centrality)**의 개념은 서구의 보편적 근대주의에 입각한다. 모더니즘 시대에 ‘이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며 그리스 철학에 근본을 둔 이성중심주의는 곧 유럽의 ‘우월한’ 문화적 위치를 이용하여 전지구적인 문화사조를 이끌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문화의 중심에서 곧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의 중심은 모두 보편이성, 곧 보편적 근대주의로 정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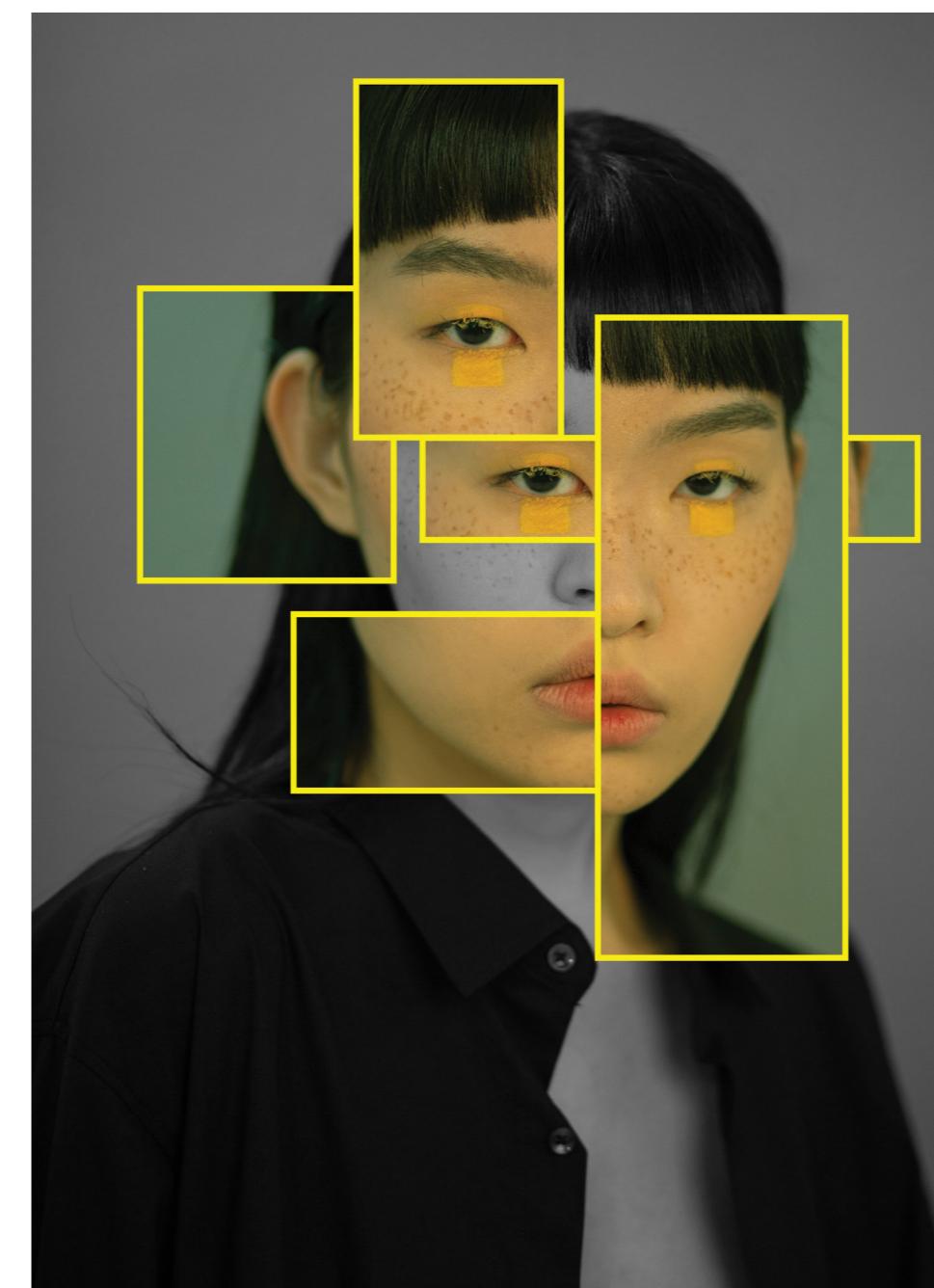
탈중심성은 곧 서구의 보편적 근대주의를 벗어나는 것과 결을 같이한다.

탈중심성은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성찰에서 주어진다. 몸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지니지만, 그러한 몸적 조건을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은 또 다른 한편 자신의 중심성을 넘어서 존재하고자 한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기에, 그에서 주어지는 조건과 한계, 그 매개를 통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문화적이며 철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러한 모순과 한계를 넘어서는 층위를 지니며, 자신의 존재성에 따른 매개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 신승환, 2009



<series\_composition> 흥 산,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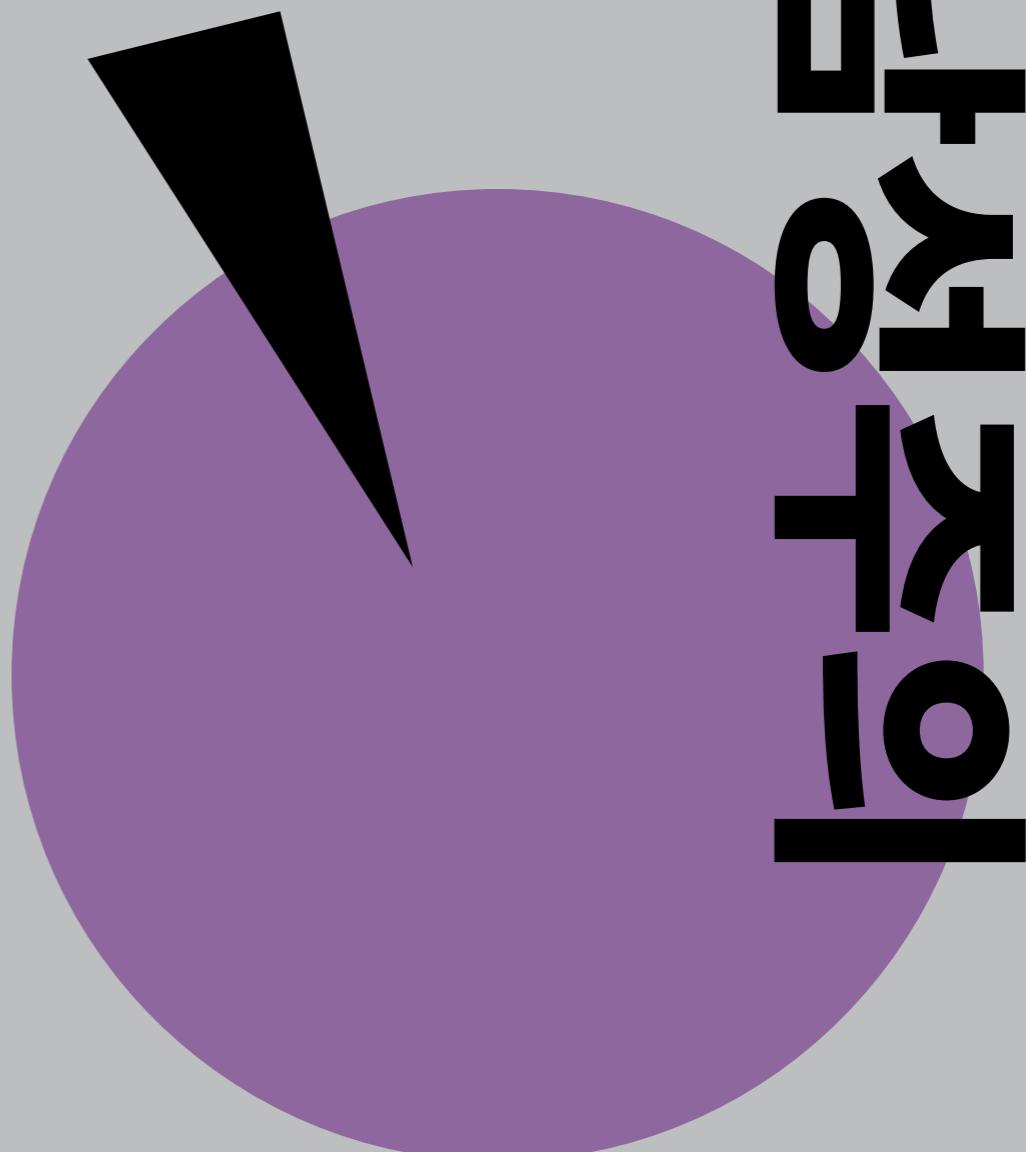
<series\_composition> 흥 산, 2018

이런 관점에서 탈중심성은 이중적으로 이해된다. 자신의 존재와 중심성에 자리할 수 밖에 없으면서 관계적 존재로서 타자의 존재와 타자의 중심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중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에서 비롯되는 일원성의 원리를 유지하면서 다원성을 수용할 수 있음, 나의 중심성을 보면서도 타자의 중심성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탈중심성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인간의 의구심에서 시작해 인간 안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행위인 것이다. 모더니즘 시대에 완벽한 이성을 재현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위에 군림하는 신의 존재가 절대이성으로 간주되었다. 모더니즘의 시대가 막을 내리며 오늘날 사람들은 불완전한 ‘의미’를 불완전한 인간 안에서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할 수 있다. 바로 의미를 해체하는 과정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의미를 해체하기 위한 의미. 모더니즘을 해체하기 위한 ‘포스트모더니즘’. 이제부터 **의미의 해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요  
온  
카  
오  
보  
카  
오



얼마 전 여성 미디어 연구를 하는 석사생(이하 양님)과 만나 만들어지는 이미지 안에서의 성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연 ‘female gaze\*’란 것은 존재하는가? **female gaze**로 정의되는 이미지는 어떤 특질을 지니고 있는가?

(\*male gaze에 대항하기 위한 언어. male gaze는 쉽게 말해 여성을 성적으로 재현하는 남성의 시선.)

양님은 Female gaze를 정의하고자 했으며 탈남성주의와 여성주의를 비슷한 개념으로 전제하고 혼용하셨다. 나는 Female gaze는 실재하지 않고 언어적 수단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Female gaze가 존재한다면, 이를 명료한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가? 모든 ‘탈남성적’인 것은 ‘여성적’인 것으로 귀결하는가? 남성성의 여집합은 곧 여성이라는 또 다른 집합과 동일한 집합인가?

남성과 여성의 영역은 어떻게 정의될까?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에서 남성과 여성은 개별적 집합으로 존재하며 여성은 남성에 의해 타자화되어 열등한 제2의 성으로 그려진다고 했다. 뤼스 아리가레는 보부아르와는 결을 조금 달리하여 여성성을 정의한다;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과 남성이 아닌 것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즉, 전체 집합이라는 세계관 속 남성이라는 집합과 그 집합에 속하지 못하는 모든 약자성은 그 여집합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male gaze에 대입해보면 이미지를 창조하는 데에 있어 ‘여성의 전 유물’로 여겨지는 특질은 없다. 남성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만 존재한다.

참고문헌 |

Judith Butler - Subjects of Sex / Gender / Desire of *Gender Trouble* (1990)

황주영 (2008). 이리가레의 스펙큘룸 : 성차와 여성의 정체성. 진보평론, 10-33.



<series\_composition> 홍 산, 2018



<series\_composition> 홍 산, 2018

...여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서구 사유의 시각중심 주의 때문이다. 이리가레에 따르면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존재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와 진리를 부여했는데, 이때 ‘있음’을 확인하는 일은 항상 시각에 의존해 왔다. 실제의 시각적 감각에 의해서건, 아니면 시각적 은유에 의해서건 간에, 진리와 주체는 반사와 반영을 통해 그 보편성과 동일성을 보장받아왔던 것이다. 여기에서 여성은 ‘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특징을 부여받았다. ‘눈’을 통해서는 여성의 다양한 성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 페니스의 부재, 결여로서 정의되었던 것이다.

- 황주영, 2008

# 한국남자, 식민지남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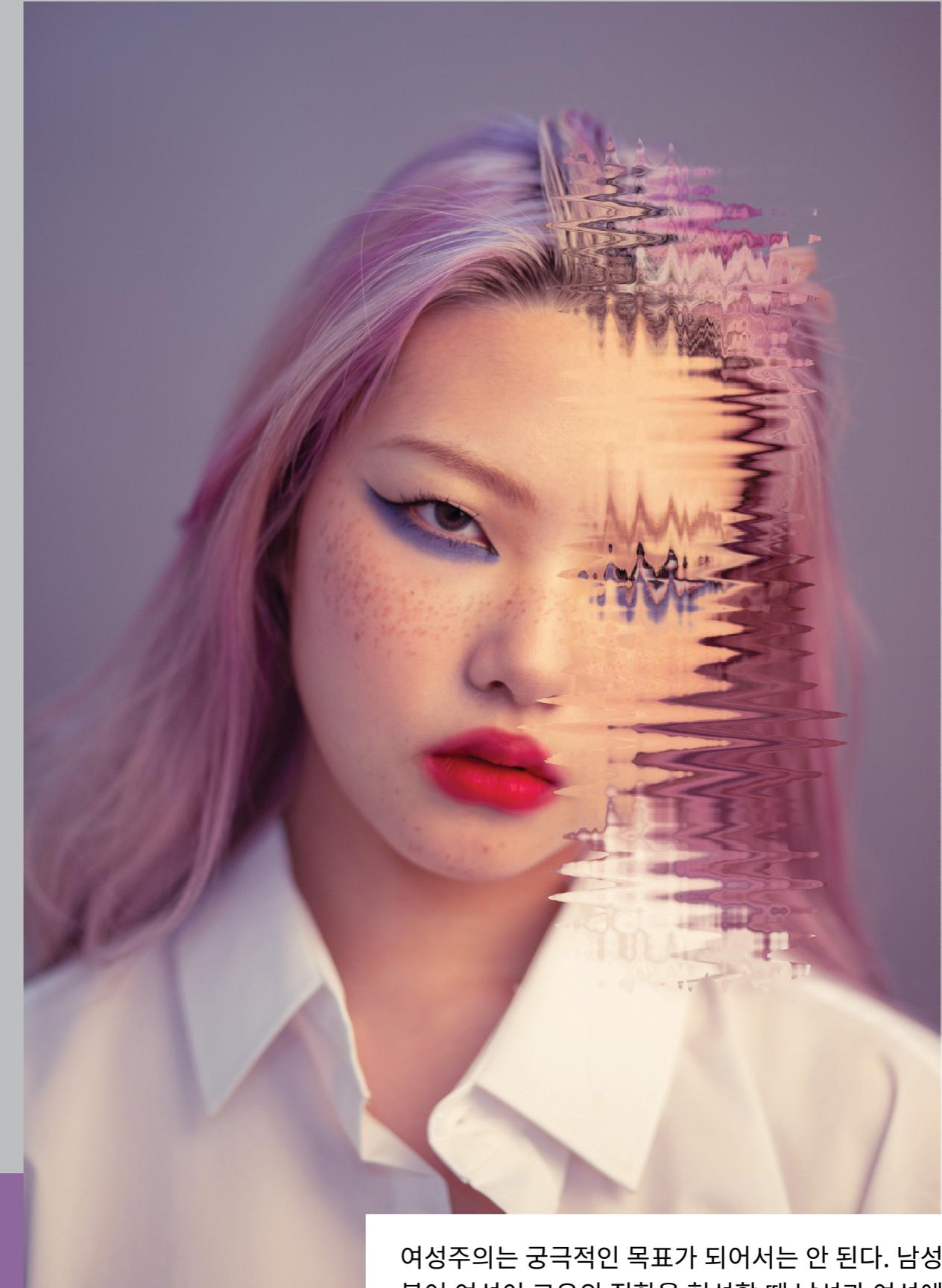
이리가레는 여성성을 남성성 집합의 여집합, 그 일부로 보았다. 고유의 언어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성은 영원히 남성이 만든 언어 안에서 타자화되어 존재할 뿐이다. 남성은 남성 언어의 반복적 재현을 통해 **남성의미화경제**를 이루어 간다. 남성의미화경제는 간단히 말해 남성이 만든 남성의 언어로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표시함으로써 남성의 패권을 지켜가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최근 한국 남자의 줄임말인 ‘한남’이라는 신조어가 논란이다. 일부 한국 남자는 모든 남자를 싸잡아 일반화하는 ‘남성혐오’의 언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남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는 특질을 보면 한남은 글자 그대로 한국 국적 혹은 한족의 피가 섞인 남성을 뜻하는 언어가 아니다. 한남이라는 언어는 강자의 위치에 존재하지만 강자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되려 사회적 약자층의 약자성을 특권이라 간주하는 **식민지 남성성**을 상징한다.

김치녀, 된장녀, 꽃뱀과도 같은 여성을 향한 혐오적인 언어는 긴 시간 동안 큰 반발 없이 꾸준히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한남’이라는 직접적인 혐오 언어가 깃들지도 않은 언어가 이렇게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남성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억압받는 비남성이 남성의 언어를 빌려 남성을 대언어로 돌아간다. 이렇게 남성은 남성연대와 남성의미화경제를 통해 역사적 지위를 지켜나가고자 한다.

그렇다면 비남성은 어떻게 그들의 존재를 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을까?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는 페미니즘이 사라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리가레의 남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여성’, ‘퀴어’ 등 약자적 위치에 놓인 존재를 일컫는 언어를 없애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잠성의 언어를 여성의 언어로 재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남성중심주의를 없애는 수단으로써 ‘여성주의’라는 언어가 생겨난 것이다.



여성주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성과 더불어 여성의 고유의 집합을 형성할 때 남성과 여성에 속하지 않는 여집합이 또 다른 이름 없는 약자로 이 사회에서 언어를 잃고 지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주의는 이 사회를 이루는 중심의미인 남성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탈중심화의 과정 중 하나이자 **여성이 목소리를 얻기 위하여 재정의된 언어**이다.

# 시선의 언어와 시선-당하기

비남성이 바라보는 세계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하다.

그들은 본인의 약자성을 시선에 투영해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를 동등한 시선에서 바라볼 줄 안다. 위계를 가진 감정인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같은 시점에서 바라보는 공감을 표현할 줄 안다.

...  
그들은 더 이상 고분고분한 안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언어를 배우고 도구에 능숙해졌다. 우리는 시선의 권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시선에는 권력이 있다. 바라보다-라는 행위는 위계를 가진다. 위계의 중심은 늘 남성이었다. 시선의 역사는 계급과 미술의 역사와 그 발자취를 함께한다. 여성은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여성은 누군가를 고유의 시선으로 주체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고유의 형태로 표현할 수 없었다. 열등한 여성은 감히 바라보아지고 대상으로서 취급되는 자리를 벗어날 꿈을 꿀 수 조차 없었다.

몇몇의 여성 예술가들은 남성의 이름을 빌려 몰래 작품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여자 미술가들만이 낼 수 있었던 유니크한 봇ter치, 과감한 색상표현 등 획일화되지 않은 표현기법에 아주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 시간이 흘러서야 남성의 이름 아래 숨어있어야만 했던 여성 예술가들의 능력과 작품이 재평가되었다.



본격적으로 여성이 예술로서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한 건 사진기술의 발달과 함께한다. 사진기술이 대중에게 보급되며 늘 피사체로서만 소비되던 여성들은 직접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나섰다. 그들은 기존의 남성주의적인 시각이 아닌 여성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한 시선으로 여성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신디 셔먼 같은 예술가들은 있는 기준의 성적으로만 대상화 되던 여성의 신체를 담는 사진에서 탈피해 있는 그대로의 여성은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시작했다.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점차 늘어나며 여성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언어를 습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도구에 능숙해졌다.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예술을 통해 개인의 경험이 투영된 억압의 역사를 표현하며 포스트모던 예술은 한층 풍부해졌다. 그들은 다양한 재료와 매체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운동을 진행하기도 하며 예술로서의 페미니즘 운동을 이어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남성들에게 ‘맛있게’ 소비되는 ‘먹을 수 있는’ 여성 아니었다.

비남성이 바라보는 세계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하다. 그들은 본인의 약자성을 시선에 투영해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를 동등한 시선에서 바라볼 줄 안다. 위계를 가진 감정인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같은 시점에서 바라보는 공감을 표현할 줄 안다. 이 모든 건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연대과정에서 필히 생길 수 밖에 없는 능력이다. 비남성들은 이 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약자들의 연대체를 꾸리고 대중을 설득해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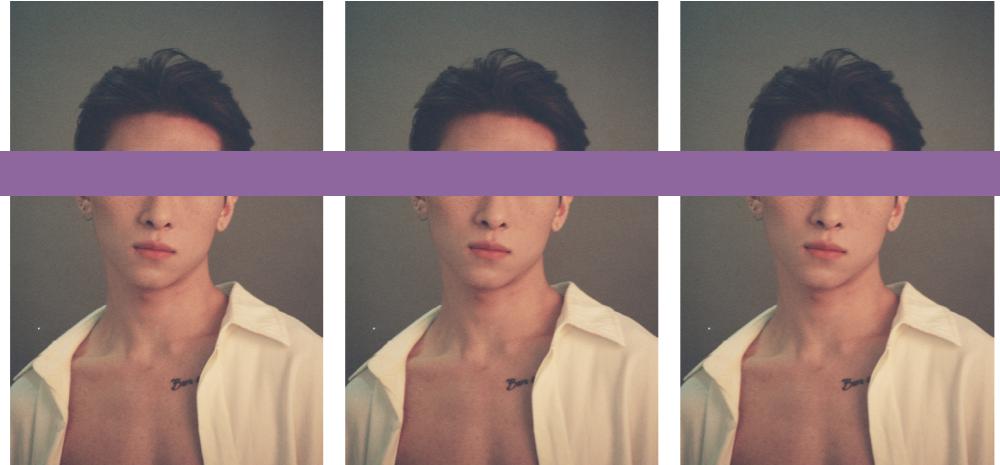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뜨거운 주제이다. 여전히 낙태가 중죄로서 처벌을 받는 공동체 안에서 한국 여자들은 아직도 고유의 기능인 출산조차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결여되어 있다.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불법촬영물들이 유통되고, 여전히 남성의 여성을 향한 성범죄는 별 것 아닌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더 이상 여성들은 가만있지 않는다. 거리로 뛰어나가 외치고, 본인의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동원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한다.

여성은 시선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이고 성의 수단으로써의 신체를 가진 객체에서 다양한 언어로 자아와 신체를 표현해나갈 수 있는 주체로 성장했다. 여성들은 고유의 언어를, 그리고 고유의 시선을 형성해나가며 기존의 서구의 보편적 근대성에 기반한 남성주의를 해체해나가기 위한 탈중심화 태풍의 한 가운데에 서있다.

산업화에 따른 고속경제성장의 후폭풍을 그대로 맞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탈중심화를 이끌어나가는 건 결국 어떠한 성질로서의 여성-성인 것이다.



# 視線 「시:선」



**composition of de-centrality  
does mean something.**



copyrights. 홍 산